

하루키의 유언

벚꽃 아래에서, 떨리긴 해도 내 손으로 직접 썼다.

조카 켄지에게,

이 편지가 네게 닿을 즈음이면 매미 소리도 잦아들고, 나는 마침내 마지막 세트를 다 조립했을 것이다.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라. 나는 가득 찬 삶을 살았고, 그 충만함의 많은 부분은 어두운 작업실에서 밤이면 악마처럼 아픈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로 왔다. 너뿐이었다. 다른 가족들이 좋은 방에서 차를 마시며 돈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상자들 사이 다다미 위에 나와 함께 앉아 있었고, 부품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값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너는 알고 있었다. 내가 알았던 것처럼, 값과 가치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남기는 것과 그것을 받을 사람이다.

네 아버지, 내 동생에게는 낡식대를 남긴다. 그는 이유를 알 것이다. 그리고 결코 쓰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에게는 자정 넘어 낫던 소음에 대해 사과한다. 그건 결코 바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켄지, 너에게는 전부를 남긴다. 모든 상자, 모든 서랍, 작업대 위 선반에 반쯤 만들다 만 모든 것. 컬렉션. 전부 다. 이제 네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남긴다. 이 부분은 두 번 읽어 주기 바란다.

이 브릭들에게 마땅한 사랑을 주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사당처럼 유리 뒤에 안전하게 모셔두라는 뜻이 아니다. 조립하라는 뜻이다. 내 모델들을 분해해서 내가 꿈도 꾸지 못했을 무언가로 만들어라. 마루바닥 밑으로 부품 하나를 잃어버리고 제대로 애도해라. 맞는 브릭이 맞는 자리를 만나 그 작고 완벽한 딸깍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그 작업대에서 만 번은 느꼈던 것을 느껴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 절대 색깔별로 정리하지 마라.

색깔은 조립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사진 속에서는 깔끔해 보이지만, 작은 부품 하나가 필요한데 베달간 것만 보이는 순간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모양으로 정리해라. 부품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로 정리해라. 배울 수 있다면 사랑으로 정리해라. 하지만 켄지, 절대, 절대 색깔로는 하지 마라. 이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컬렉션은 진정 네 것이 된다. 플라스틱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유 전부다.

이제 가서 무언가를 만들어라. 나는 벚꽃 아래에서 지켜볼 것이다. 분명 네 부품 정리에 대해 투덜거리면서.

온 사랑을 담아,

하루키 삼촌